

-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
-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

주제: 아버지 제목: 순종과 공경 성경: 에베소서 6장 1-4절

-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
-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
- 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
- 4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(엡6:1-4)

-오늘은 아버지주일.

-사실 기독교 윤리는 매우 단순하며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유익하고 큰 노력이나 비용이 많지 않는다.

-또 가정생활에서 갈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우수한 윤리다.

-또 기독교윤리는 모든 시대에 적응하는 힘이 크다.

-심지어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하셨다. (율법주의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)

-그러나 기독교윤리도 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. 그것은 생명력이 소멸되어 버릴 때이다. 기독교 윤리(또는 교리)에는 독특한 생명력이 있다.

-가장 쉽게 설명하면 성령의 능력, 성령의 기운이다. 기독교윤리에 성령의 기운이 빠지면 곧바로 식어버린 빵처럼 맛이 똑 떨어지고 그 좋던 효과가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버린다.

-그러면 무늬만 기독교인, 재미없는 사람, 표독스런 사람, 감시자, 자칭 경찰관 이란 별명이 붙은 이상한 사람이 된다.

-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최고로 주의해야 한다. 설령 성령이 소멸되었다는 느낌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과 그 나라와 그 영광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앙망해야 한다.

우리 몸에는 각 세포마다 DNA가 있다. 얼마나 우수한지 모른다. 이 세포들은 처음 당하게 되는 위기상황이 닥치더라도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. 생명력이 DNA를 잘 이용하기 때문이다.

-그러나 그런 놀라운 DNA라도 생명이 없으면 무용지물. 아무 짝에도 쓸데 없어서 화장터에서 재로 변하고 만다. 마찬가지로 놀라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성령이 없으면 율법이 짐이 된다.

-그러므로 기독교윤리의 큰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하고 간구해야 할 것이다.

-오늘은 어버이날이니 가정에서의 윤리에 대한 말씀을 듣자.

-가정의 윤리는 크게 자녀들의 윤리와 부모들의 윤리로 나뉜다.

-자녀들의 윤리는 결혼 이전과 결혼 이후로 나뉜다.

-결혼 이전에는 순종을, 결혼 이후에는 공경을 한다.

-순종이란 부모의 법에 따르는 것을 뜻한다. 부모의 영적, 정신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다. 순종의 특징은 몸과 마음으로 그 가치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.

-공경은 순종과 차이가 있다. 공경은 부모의 영적, 정신적 가치를 유산으로 물려 받으면서 이제 장성하여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물질로 부모를 섬기는 것을 말한다.

-자녀가 장성하면 그는 이제 한 가정의 가정이 된다. 그러므로 나름대로의 영적, 정신적 가치관을 갖는다. 넓게 보면 그 부모님의 유업을 따르는 것이겠지만, 세밀하게 관찰하면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변화가 있게 된다. 그래서 그 윗 세대에서는 가치있던 것들이 이제는 가치가 퇴색되고, 오히려 다른 가치들이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. (어떤 것은 마귀가 흉내를 내는 것도 있고, 어떤 것은 문화나 정치 형태가 변경된 경우도 있다.)

-이때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는 물려받은 유산이 잘 발생하게 되어 새로운 규칙과 질서들을 만들어 낸다.

(기독교에서 결혼은 분가를 의미하므로 혹시 함께 살더라도 자녀가 장성하였다면 분가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겠다. 그러나 모든 형편에 가장 적절하고 유익하게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다.)

-여자의 경우에는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. 그러므로 친정의 가치관들은 남자보다 더 많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.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인격이나, 권리가 축소 되거나 억압받는 것은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니다.

-따라서 기독교는 가부장적, 남자 우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독교 윤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. 누군가가 질서를 세우야 하는데 남편이 질서를 세우도록 하라는 뜻이다.

-물론 어떤 가정은 남편보다 아내가 더 질서를 잘 세우는 가정도 있을 수 있다. 그럴 경우라도 그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거나 존중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될 것이다.(반대도 마찬가지)

-그러므로 기독교윤리는 가장 중요한 질서의 집을 세우는 것으로 가정의 윤리를 마감하고 있다. 기타 세부적인 것은 그때 그때 성령께서 전체 가족들을 통해서 계시하실 것이며, 또 교회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을 것이다.

-특히 2절에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임을 강조하고 있다.

-이 약속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말하고, 행통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다.

-4절에는 부모들의 윤리가 나오는데,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먼저 나온다.

-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, 그 영혼을 건디기 힘들게 하여 부모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는 뜻.

-1절에서도 '주안에서' 4절에서도 '오직 주의 교훈'을 강조하고 있다. 기독교윤리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은혜, 하나님의 임

재, 성령의 충만임을 강조하는 단어이다.

- 교훈은 하나님 말씀. 하나님의 계시, 성령의 감동

- 특히 교훈은 ~하라는 것, 훈계는 ~하지 말라는 것, 어길 경우 처벌을 통해서 악을 근절하도록 되어 있다.

- 양육이란 사랑으로 키운다는 뜻. 그러면 그 가정은 대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로 형통하며, 헤어지지 않으며, 사이가 멀어지지 않으며, 산업이 꺾이지 않으며, 저주가 끊어지고,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가정이 될 것이다.

<찬양예배>

주제:규칙 제목:성경공부의 유익

말씀:고린도전서11:1-16절

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

2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

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사라

4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

5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

6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

7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

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

9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

10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돌지니라

11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

12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

13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나

14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

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

15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

16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(고전11:1-16)

-십계명과 율법(속죄법, 정결법, 민법)과 규례(규칙)과 관례(예절로 자리잡은 것들)들의 관계

십계명은 그 문자적 의미까지도 철저히 지키자

속죄법은 예수님과 연결해서 그 의미를 잘 깨닫자

정결법은 영적으로는 보혈과 연결해서 지키고, 문화적으로는 청결이나 의료문화와 연계해서 지키자.

민법은 그 의미를 오늘의 대한민국 민법과 연결해서 보다 잘 지키자.

규례들은 사회통념이나 전통, 공통적인 가치관, 문화와 문명과 깊이 관계가 있으므로 규례들을 율법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
-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며, 가장 훌륭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. 규칙을 새롭게 하는 자가 영적 리더가 된다.

3. 질서, 순서; 여자-남자-그리스도-하나님. 질서를 지키면 보호와 복이 오는 순서. 질서가 있으면 다툼이 없다.

4.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;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. 머리는 질서를 상징. 머리는 뇌가 있어서 지성과 지혜와 사상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. 그래서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표현.

-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보편적인 패션 감각으로 설명한 것임.

-세월이 지난 후에는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여성에 대한 구속을 의미. (점차 이것은 이슬람 세계권에서만 통하는 문화가 됨.-가터벨트 여인-화성인)

-오늘날 자유스럽긴 하지만, 여전히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성향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.

5.머리카락의 보임과 가림의 의미;당시에는 머리카락을 내 보이는 것을 부끄럽게 여김. 이는 창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음. 나는 주인없는 여자입니다. 머리카락을 꾸밈으로 남자들을 유혹한다고 생각함.

-정상적인 가정이 없는 여자들이라는 생각.

-요즘은 복장으로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더 큰 가치.

-예전에는 복장으로 차별을 두어서 현숙한 여인들을 보호하고 울타리에 가두려고 했음. 두가지 방법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.

-중요한 것은 어떤 율법, 풍속, 가르침 보다는 그 정신에 있고 성령의 감동에 있다.

-시대와 지역마다 관례가 있으니 그것을 무시하지도 말 것이며, 너무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무례가 되므로,(바바리맨)

-패션 만큼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검증된 아름다움을 따라감이 무난함.

-또 패션에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깃들여 있으므로 그 의미들을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.

-거기에 더하여 기독교적 가치들을 첨가한다면 더 없는 멋이 될 것이다.

